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프론티어’ 선정

4개 팀 축제 기간 ‘소리NEXT’ 쇼케이스 무대 올라… 최종 1개 팀 해외 쇼케이스 추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소리축제, 조직위원장 이왕준)는 지난 12일 ‘2025 소리프론티어’ 2차 실연 심사를 통해 4개 팀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올해 ‘소리프론티어’는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1차에서 8개 팀을 선정한 데 이어, 2차 실연 심사를 거쳐 우리음악집단 소속, 시나비(SINAVI), 공상, 조선아 등 총 4개 팀을 뽑았다.

전재현 소리프론티어 예술감독은 “세상을 깊게 살피고, 오랜 음악과 악기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만나 그 소리를 공유하는 예술가들이 여기, 우리 곁에 숨 쉬고 있었다”며 “결국 4팀

을 선정했으나 우리의 선택은 불안하다. 예술성을 판단하기보다 올해 처음 열리는 마켓인 ‘소리NEXT’라는 시장의 경향성을 고민해 내린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된 4개 팀은 오는 19일~21일까지 도내에서 합숙 워크숍을 진행하며, 축제 기간인 8월 13~14일 중 ‘소리NEXT’ 쇼케이스 무대에 오른다. 이들에게는 국내외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과 국내외 진출 연계 지원 등의 특전이 주어지며, 전문가 및 관객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1개 팀은 하반기에 해외 쇼케이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희선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은 “소리축제의 ‘소리프론티어’는 이제 신진 국악 창작자 발굴을 넘어 창작자와 시장을 잇는 플랫폼으로서 창작자의 다음(NEXT)을 함께하고자 한다”며 “선정된 팀들 모두가 소리축제의 ‘소리NEXT’를 통해 국내외 전통음악의 시장으로 진출하고, 더 넓은 세계와 마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오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및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장은성 기자

김성수 도의원, “전북형 예술인기본소득 도입해야”

“끼니 걱정 때문에 예술적 영감 얻지 못하는 사회는 ‘죽은 시인의 사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고창1·사진)이 1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북형 예술인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에서 문화예술이 공공자신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또 “그 사회의 문화의 수준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즐길 때는 공공의 자산으로 즐기지만 생산의 영역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로 맡겨져 있다”면서,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하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국내외에서도 예술인기본소득은 이미 시행 중이다. 조건 없이 예술인들에게 3년간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여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아일랜드와 월 1천달러를 지급하는 뉴욕의 예술가를 위한 보장소득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금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예술인 기본소득 개념과 큰 차이는 없다.

김성수 의원은 “예술적 창작의 결과물은 공적 영역이고 김관영 지사가 강조하는 문화산업도 예술인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육성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모델 구상과 시범사업을 통한 본사업 확산 등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박물관에서 즐기는 특별한 여름방학

동학농민혁명박물관, 하계 특별 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 박캉스’ 운영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 이하 기념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하계 특별 프로그램 ‘동학농민혁명 박캉스’를 운영한다. 이 행사는 정읍시 황토현 소재 동학농민혁명박물관에서 오는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리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캉스’는 ‘박물관(Museum)’과 ‘바캉스(Vacance)’를 결합한 신조어로, 박물관에서 즐기는 특별한 휴가를 뜻한다. 야외 활동이 어려운 무더운 여름, 시원한 박물관에서 전시 관람과 함께 다양한 만들기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름나기 이색 교육체험 프로그램이다.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주요 대상으로 기획한 이번 프로그램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사적 상상력과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원한 박물관 내부 공간 및 야외 기념공원을 활용해 역사 교육과 문화 향유는 물론, 여름철 피서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학농민혁명 박캉스’에서는 △동학농민군의 무기를 모티브로 한 대나무 물총 만들기, △북산인민의 정신을 담아 꾸미는 동학농민군 섹션 만들기, △사발통문 도장을 찍어 완성하는 나만의 비치백 만들기, △직접 만든 물총으로 참여하는 야외 퍼즐 타격 게임, △SNS 인증을 통한 기념품 이벤트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오후 12시부터 1시)과 월요일 휴관일은 제외된다. 모든 체험은 무료이고, 별도의 예약 없이 현



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10인 이상 단체의 경우 사전에 전화로 예약해야 하며, 준비된 재료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올 여름, 동학농민혁명 박물관이 무더위에 지친 관람객들에게 시원하고 특별한 여름 피서지이자, 유익한 역사 체험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참가자들이 놀이와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공식 홈페이지(www.1894.or.kr) 및 SNS 채널, 전화(063-530-940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 펠어비스와 청소년 게임 개발 교육 프로그램 진행



군산시가 15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C)에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게임개발 교육 프로그램인 ‘딩가딩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군산시가 15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C)에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게임개발 교육 프로그램인 ‘딩가딩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딩가딩 프로젝트’는 게임개발사 펠어비스와 청년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콕이 주관하는 사회공헌 교육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는 문창초, 지곡초, 중앙초 등 3개 학교가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게임개발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교육은 초등학교 수준에 맞춰 △게임개발 과정 이해 △코딩 없이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시각적 코딩 도구인 Buildbox 프로그램을 활용한 블록 코딩 실습 △픽셀 단위로 게임에서 사용할 캐릭터, 배경 등을 만들어보는 픽셀 아트 에셋 제작 △팁별 게임 기획 및 제작 등 체험 중심으로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우수한 성과를 보인 2개 팀은 오는 12월 펠어비스 본사(경기도 과천시)에서 열리는 1박 2일 ‘파이널 해커톤’ 대회 참가 기회가 주어져 더욱 큰 기쁨을 만끽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 고군산섬잇길 나의 최애 여름 휴가 콘텐츠 이벤트

군산시가 ‘고군산섬잇길’ 공식 사회관계망(gogunsan_seomitgil)에서 댓글 참여형 이벤트 ‘나의 최애 여름 휴가 콘텐츠’를 진행한다.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고군산섬잇길’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름휴가 콘텐츠 중 자신만의 최애 여름휴가 콘텐츠를 고른 뒤 친구 2명 이상을 태그하고 댓글로 참여하면 된다.

선택할 수 있는 여름휴가 콘텐츠는 여객선 관광·선상낚시·캠핑 및 백패킹·해안 트레킹(걷기여행)·미식 체험·어촌 체험으로 총 6가지이다.

시는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만 원 편의점 상품권을 증정하며, 당첨자는 7월 중 공식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에 진행한 ‘날पाल 찾아 떠나는 고군산섬잇길! 빙고판 속 숨은 섬 찾기 이벤

트는 약 3,2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 3월부터 진행한 이벤트 누적 참여자는 약 7,5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고군산군도 K-관광심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채널로 ‘고군산섬잇길’ 공식 사회관계망(SNS)을 인스타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다. 계정을 팔로우하면 K-관광심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최신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으며, 매월 이어지는 다양한 이벤트 참여와 소통도 가능하다.

‘고군산섬잇길’ 다담이 이벤트는 올해 들어 4번째 진행됐으며, 11월까지 다채로운 콘텐츠를 활용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고군산섬잇길’ 홍보 이벤트로 섬 관광에 관심 있는 방문객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